

시선의 의사소통 기능

김갑년(고려대)

1. 들어가는 말

요즘 같은 복잡한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생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만나는 이 많은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은 첫눈에 호감이 가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호감이 잘 가지 않는다. 어떤 대화상대자는 면전에서 강한 비판의 말을 해도 나쁘게 생각되지 않는 반면 다른 상대자는 몇 마디 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태도가 거부적인 경우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온갖 미사여구, 친절한 말로 우리의 환심을 사려해도 우리는 그에게 끌리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러한 현상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상대방의 신체언어적 표현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외양에서 관찰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은 그들에게 천성적으로 주어진 것들이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것들 중 많은 부분을 우리는 알고 있거나 또는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간의 소통은 무엇보다 언어적, 특히 음성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 전부가 음성적 수단을 통해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비언어적 행위형태도 소통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소통은 음향적 신호의 발송과 수신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소통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¹⁾ 이는 단지 낱말들만이 소통에 필요

1) Watzlawick/Beavin/Jackson (1985: 53): "Man kann nicht nicht kommunizieren." 그러므로 인간은 침묵을 하든 잠을 자든 이 모든 것이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이 행위의 특성상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소통적이다. Schefflen (1976: 225): "Zunächst einmal kann menschliches Verhalten kommunikativ sein, selbst wenn es nicht als solches intendiert ist."

한 재료가 아니라 억양, 말의 속도, 말의 간격 등과 비언어적 수단들인 웃음, 한숨, 몸짓, 표정, 자세, 시선 등도 특정한 문맥에서 성공적 소통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행위가 소통상황에서 전달특성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언급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²⁾

언어는 이와 같은 인간의 사회행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리고 바로 이러한 언어가 우리의 행위들을 동물의 행위로부터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형성한다. 그래서 언어의 순화와 더불어 동물에게서 볼 수 있는 많은 움직임들이 인간에게 있어 이해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한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의 행동에 우호적인 또는 비우호적인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지를 즉각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상대방의 태도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지식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

본고는 일상언어사용에서 시선이 상대방과 관찰자에 의해 어떻게 평가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시각적 능력은 인간의 지각적 능력이며 감각적 능력이다. 인간의 지각은 시각, 미각, 후각과 체감을 포함하며 소통의 성공을 위해 중요하다. 그 중에서 특히 시각적 차원, 시각이 큰 소통적 의미를 갖는다. 이 영역은 시각적 소통이라 지칭되며, 이 시각적 소통에서 소통상대자가 볼 수 있는 소통적 행위, 즉 얼굴표정, 몸짓 등이 전달된다. 이러한 비언어적 소통은 인간의 시각적 표현형태와 관련을 맺는다. 이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시선 또는 손짓 등 비언어적 수단들이 개별적으로 특정한 기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전체 몸짓과의 결합하여, 그리고 이러한 비언어적 수단들과 함께 나타나는 언어적 발화상황과 밀접한 관계에서만 정확히 관찰되고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고의 관심사는 이 모든 영역을 다루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시선행위가 사회적 상호행위에서 어떤 조건과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다.

2) Watzlawick/Beavin/Jackson (1985: 51): "Man kann sich nicht nicht verhalten. "

2. 비언어적 소통

2.1 '비언어적 소통'의 개념정의

인간상호간의 소통과정에 나타나는 비언어적 현상의 총체를 일반적으로 비언어적 소통이라 하며 많은 분야의 연구대상으로 오늘날 여러 관점에서 연구된다. 이러한 비언어적 소통수단은 구어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문자를 사용하는 문어적 소통보다 구어적 소통에서는 비언어적 수단들이 함께 고찰되지 않으면 전체 소통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사회적 행위에 대한 언어의 특별한 의미는 몇 번을 강조해도 충분하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인간들 사이의 소통의 유일한 매체는 아니라는 것이다. 언어 외에 다른 요소들도 소통에 사용되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선택적 보충,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필수적인 보충 역할을 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는 간단하게 비언어적 수단이라 한다. 비언어적 소통은 언어적 소통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상이한 경로를 통하여 실현된다. 음성을 사용하는 음향적 경로와 문자를 사용하는 시각적 경로이다. 물론 비언어적 경로에서 사용되는 요소들은 언어적 영역에서 사용되는 언어나호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비언어적 소통수단들은 구어적 소통에서 주로 사용되며 문자적 소통에서는 문자의 형태, 크기, 색채 등과 같은 요인을 통해 실현된다. 그러나 이러한 비언어적 수단이라는 용어를 좀더 자세히 관찰하면 '비언어적'이라는 용어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음의 강약, 리듬, 말의 속도 등과 같은 요인들은 비언어적이라 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정도로 언어사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에 비해 얼굴표정, 몸짓, 시선접촉, 화자간의 거리, 의복 등과 같은 요인들은 음성과 직접적 관계가 없다. 정확한 의미에서 비언어적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은 직접대면적 구어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비언어적 소통현상들은 최근에 와서야 비언어적 소통이라는 개념으로 심도 있게 연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비전문가가 불만한 중요한 요점만을 요약한 책들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실험적 연구의 결핍은 사회언어학적 측면에도 역시 찾아볼

수 있다. 비언어적 수단의 관점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가 대화 시 화자와 청자의 역할교환이다. 우리는 일상언어사용에서 비언어적 수단, 특히 시선접촉과 같은 시각에 바탕을 둔 수단을 이용하여 별 문제 없이 화자교환을 시행한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움직임의 다양한 관점에서, 특히 신체움직임(전체로서 몸의 움직임 또는 각 신체부분의 움직임)의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Ehlich/Rehbein에 따르면 비언어적 소통은 수반적 소통과 자립적 소통으로 나뉜다. 수반적 소통은 다시 중립적 소통과 고유한 소통으로 나뉘지며 자립적 소통은 제시적 소통과 과시적/강조적 소통으로 나뉜다.³⁾ 시각적 소통경로에 반해 수신자가 정보를 청각으로 인식하는 소통과정을 청각적 소통이라 지칭한다. 이러한 시각적 소통에서는 시각이 유일한 사회적 성과를 일으킨다.

비언어적 소통의 신호는 목소리의 크기, 음 상태, 발음리듬, 웃음, 기침 등과 같은 음성적 수단과 표정, 몸짓, 시선접촉, 외적 모습, 의복 등의 비음성적 수단으로 나눌 수 있다.⁴⁾ 비음성적이고 시각적인 소통경로는 수용자에 의해 시각적으로 인지되는 정보발송자의 모든 행위방식을 전달한다. 이러한 시각적 수단은 네 개의 큰 부분으로 나뉜다⁵⁾:

- 1) 감정적 얼굴표정
- 2) 시선
- 3) 몸짓
- 4) 개인간의 간격과 공간적 태도

2.2 비언어적 소통의 역할

인간적 소통에서 비언어적 행위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질문은 의

3) Ehlich/Rehbein (1982: 10) 참조.

4) 음성적 수단의 연구를Paralinguistik이라 하며 비음성적 수단의 연구를Kinestik이라 한다.

5) Scherer (1973: 43) 참조.

심할 바 없이 흥미로운 질문이다. 비언어적 소통행위들은 우선 무한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개인적이고 일회적인 표현형태로 이해되었다. 우리는 당연히 공통의 소통적 의미를 갖는 문화적으로 표준화된 신체어를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사회적 행위들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모든 개인들에게 개별적이고 일회적인 것은 아니다. 문화는 그 문화의 언어적 소통수단과 함께 분류되나 문화는 역시 비언어적 수단과 함께도 구분된다. 두 사람이 서로 소통을 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이든 소통수단을 동일한 의미에서 사용해야만 한다. Argyle⁶⁾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문화에 속한다고 한다:

- 1) 사건들을 상징화하고 분류하는 하나의 공통언어
- 2) 세계를 보고 사고하는 공동의 방식
- 3) 협동을 가능케 하는 비언어적 소통과 사회적 상호행위의 약속된 형태들
- 4) 다양한 상황에서의 행위에 관한 규칙과 협약들
- 5) 약속된 도덕적 가치와 그 외 종교적 또는 그와 유사한 신앙체계

비언어적 소통의 기능에 관해 일반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비언어적 수단들에 의해 다양한 기능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소통행위는 항상 어떤 특정한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 즉 이러한 소통행위의 진행에서 이 행위의 도움으로 특정한 효과를 달성하려는 것이 비언어적 소통에도 해당된다. 비언어적 영역에서도 의도가 존재한다는 것, 예를 들면 언어적 표현이 몸짓, 움직임, 또는 음의 강약 등에 의해 강조되거나 발음속도, 높낮이 등을 통해 특정한 효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들은 보충적 또는 보조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두 사람 또는 그 보다 더 많은 사람이 상호행위를 하면 그들은 때로는 의도적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그 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영향을 주는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다양한

6) Argyle (1972: 77) 참조.

신호를 보낸다.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는 것, 말을 하거나 또는 침묵, 이 모든 것은 전달의 특성을 가지며 이러한 행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이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소통에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언어적 소통은 이와 같이 여러 관점에서 비언어적 수단에 의존하는데 비언어적 소통을 통해 주의와 반응이 암시된다. 비언어적 수단들이 언어적 수단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가는 비언어적 소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그들은 이러한 비언어적 수단의 결핍으로 인해 상대방에 의해 흥미로운 상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들이 그를 재미없는 사람이라 여기기 때문에 대화상대자를 찾기조차 쉽지 않을 것이다. 비언어적 요소들이 언어적 소통을 돕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소통수단은 종종 서로 일치하지 않기도 하는데 이는 언어적 수단이 비언어적 수단보다 더 쉽게 구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하는 사람이 냉정함을 잃었을 때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많은 사람들이 경험에서 알 것이다. 얼굴표정과 몸짓이 완전히 마비된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는 별 문제 없이 사용되던 비언어적 수단들이 상황이 변함에 따라 언어적 수단을 제한하는 장애요소로 변한다. 이와 같이 적절한 신체어가 언어를 도우면 화자는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적절치 못한 비언어적 수단의 사용은 화자가 의도하는 목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비언어적 신호들은 언어적 표현에 맞아야 하며 언어적 표현들을 확인을 해 주어야만 한다. 몸짓을 통해 종종 언어적 표현과 일치하지 않는 진실된 정보가 암시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몸짓, 얼굴표정 또는 시선으로 그들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 어떤 다른 것을 원하고 느낀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비언어적 수단들은 상호행위자들의 인지적이고 감정적인 상태, 즉 두려움, 불안, 흥미, 관심 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며 언어적 수단들과 여러 측면에서 비교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언어적 소통과 비언어적 소통을 구분할 수 있다⁷⁾:

7) Argyle (1969: 74) 참조.

- 1) 언어의 도움으로 사물과 다른 사람들에 관하여 가장 훌륭하게 소통할 수 있으며, 비언어적 수단으로는 감정이나 상호간의 태도 그리고 상호행위의 다른 관점을 표현하는데 더 적합하다.
- 2) 언어적 표현은 조심스럽게 사용되나, 비언어적 수단은 모든 비언어적 수단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자발적으로 사용된다.
- 3) 언어적 표현들은 중추 신경계통의 특별한 부분에 의해 생산되나, 대부분의 비언어적 수단은 자율신경계통의 하부중심에 의해 직관적으로 조정된다.
- 4) 언어는 자의적으로 기호화되어 있으며, 비언어적 상징은 대부분 비유적이거나 또는 기호화되지 않았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에 따라 언어적 소통수단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비언어적 수단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다른 사람들의 비언어적 수단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하기가 쉬울 것이다. 언어적 수단이 특정한 어휘적, 상황 종속적 의미를 갖고 있듯이 비언어적 수단 또한 특정한 의미를 갖는다.

둘째, 특정한 효과를 얻기 위해 이러한 비언어적 수단들을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즉 언어적 수단의 자리에 비언어적 수단들이 사용되며 의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셋째, 의도되지 않은 정보전달 기능이다. 발신자에 의해 의도되지 않은, 그러나 수신자가 이 정보를 지각하고 발신자의 소통적 행위를 해석하는데 사용하는 동인이 발송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말의 속도, 음성울림, 특정한 움직임, 얼굴표정 등에서 화자가 어떤 감정적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화자의 의도와 항상 부합하지는 않으며 무의식적으로 또는 그의 의도와 상반되게 드러나는 것이다.

Scherer는 비언어적 소통수단의 기능을 Morris의 기호론에 기대어 우선 "parasemantische", "parasyntaktische", "parapragmatische Dimensionen"에서 살펴본다. 그는 parasemantische 영역을 특별한 비언어적 행위양식이 그 행위양식들과 함께 출현하는 의미내용에 대한 관계라고 요약하며 이러한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기능을 언급한다:

- 1) 대체에서 비언어적 소통의 신호가 언어적 의미내용을 대신한다 (예를 들면 ‘예’라는 대답 대신 긍정의 고개 끄덕임). 비언어적 수단은 대체를 통해 의미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전달한다.
- 2) 부연에서 비언어적 소통수단은 언어적 표현의 명료화에 도움을 준다 (‘저기’라는 표현과 함께 하는 지시행동)
- 3) 모순에서 비언어적 소통수단과 언어적 표현 사이에 모순이 존재한다 (거부에서 동의하는 고개 끄덕거림)
- 4) 수식을 통해 언어적 표현이 화자태도에 관하여 수식된다 (동의하는 언급과 함께 하는 조소적 미소)

Scherer의 기능구분 중 두 번째인 *parasyntaktische Dimension*은 두 가지 본질적인 기능으로 구분된다:

- 1) 비언어적 수단을 통한 언어흐름의 분절
- 2) 다양한 소통경로에서 상이한 행동양식들의 동시작동

언어흐름의 분절은 무엇보다 비언어적 기호에 의해 자주 뚜렷해지는 발화의 리듬에 관한 것으로 시간성과 지속성에 종속적인 비언어적 요소들인 멈춤, 발화속도 등과 같은 언어흐름의 관점이다. 다양한 소통경로에서의 행위유형들의 동시작동은 모순에 관계되는 것으로 상이한 소통유형의 동시출현에 대한 허용성과 개연성이다.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차원과는 상이하게 *parapragmatische Dimension*에서는 반드시 비언어적 요소들을 통한 중재가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Scherer는 이 차원에서 두 가지 기능에 대해 언급한다:

- 1) 표시 또는 표현
- 2) 대화상대자의 발화에 대한 반응

표시 또는 표현기능은 화자에 의해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한 개인의 특성에 관한 표현들에 관련이 있다. 반응기능은 대화상대자의 발화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에 관한 것이다. 이때 세 가지 비언어적 신호를 구분한다: 1) 주의의 신호, 2) 이해의 신호, 3) 평가의 신호.

Scherer는 Morris의 기호론에 바탕을 둔 위와 같은 세 가지 기능 외에 “dialogische Dimension”을 도입한다. 대화적 차원이란 Scherer에 따르면 상호행위적 소통현상은 기호와 기호, 또는 기호와 화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만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기호와 두 상호행위자들의 이진법적 체계 사이에 연관이 있다고 한다. 이 네 번째 차원에서 중심적 관점은 어떤 특정한 기능을 구분하기 위해 두 대화상대자의 행위유형들의 협력이 이진법적 상호행위에 필수적이라는 점에 있다. 이러한 이진법적 상호행위는 적응과 관계이다. 적응이란 대화진행의 조절, 특히 화자와 청자역할의 분담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시선, 또는 시선접촉에 의해 빈번하게 청자와 화자의 역할이 결정된다. 관계기능은 개별화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 두 대화상대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근본적으로 표시기능이다.

이 외에 여러 기능들이 있을 수 있지만 위와 같은 간략한 개관으로 기능에 대한 분석을 대신하며 다음에서는 이러한 비언어적 소통수단에는 어떤 형태가 있는가 살펴보겠다.

3. 시선

우리 인간은 많은 정보를 눈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눈 하나만으로 어떤 감정을 표현하기는 어렵다. 그 예로 눈만을 남기고 얼굴을 수건으로 감싼 채 즐겁거나 노엽거나 슬픈 표정을 짓는다면 눈 하나만을 관찰해서는 어떤 차이점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우선적으로 얼굴 전체 그리고 눈꺼풀, 눈썹, 코, 입 언저리, 이마 등 얼굴의 각 부위들이 서로 결합하여 이러한 감정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뜨거운 눈빛 또는 차가운 눈빛이라 말하는 것은 아주 정확한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무의식적으로 시선으로부터 많은 것을 알아챌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눈을 가린다. 유명인들이 선글라스를 쓰는 이유는 선글라스의 이러한 기능 때문일 것이다. 선글라스를 씌으로써 사람들은 두 가지 기능, 남들이 자신을 잘 관찰할 수 없고 그 자신의 남의 주목을 받지 않고 남을 관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시선은 항상 무엇인가를 말하기에 눈으로 속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이런 시선은 사회적 상호행위의 중요한 관점 중 하나이며 시선의 방향에 따라 '시선을 돌림'과 '바라봄'으로 규정할 수 있다. 또한 바라보는 시간적 길이에 따른 분류도 가능하다. 상대방을 끊임없이 바라보면 부담을 주게 되며 이러한 긴 주시는 예의 바른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을 얼마 동안 바라보아야만 하는가를 직관적으로 알고 있다. 너무 짧은 바라봄은 예의 바르지 못하고 무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 반면 너무 긴 바라봄은 부담스러운 느낌을 준다. 똑바로 주시하는 것은 당사자가 바라보는 것에 대한 흥미를 나타내며, 옆으로 또는 비스듬한 시선은 그보다 덜한 흥미를 나타낸다.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 오랫동안 시선을 주는 것은 짧고 빠르게 시선을 거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것을 전달한다. 전자가 호감을 표시하는 반면 후자는 그 반대를 표시한다.

상호행위에서의 이러한 시선의 역할, 또는 중요성에 관하여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우리의 일상 소통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된다. 다음 장에서는 상호행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러한 시선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1 소통에서 시선의 기능

대화를 나눌 때 시선을 아래에 두는 것이 좋은 품행에 속하는 시대가 있었다. 몇몇 나라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행동은 공손함, 순종, 예의바름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상대방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서로 숨김없이 시선을 주고받는 것이 선호되며 또한 권장된다. 대화 시 서로 바라보는 것은 성공적 소통의 구성요소이다. 시선과 시선접촉의 의미는 눈이 영혼의 거울로 인식되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높게 평가된다. Von Cranach는 자신의 논문에서 상호행위에서 시선의 기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적으로 서술한다⁸⁾:

- 1) 다른 사람에 대한 시선은 그 자체가 사회적 행위이다.
- 2) 시선접촉은 중요한 사회적 사건이며 상황에 따라 상호 행위로 의도되는 목표의 한 중요한 부분이다.
- 3) 다른 사람에 대한 관찰은 그 사람에 대한 중요한 정보이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상대방의 시선이 두 상호행위자의 행위체계에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시선의 기능으로 대화상대자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지각행위를 생각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견해는 시선이 일상적 소통에서 어떤 신호로 역할을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예를 들면 ‘직접적 바라봄’은 상호행위의 준비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직접적 바라봄’은 상황에 따라 다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경우 소통의 수신인을 지시하기도 한다. 각각의 모든 시각적 행위들이 관찰기능, 지시기능, 검사기능 등과 같은 여러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비언어적 행위가 전달적 기능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어떤 한 행위가 관찰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면 그 행위는 정보적이라 한다. 이러한 행위가 의식적으로 전달의도와 공동의 기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통적이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공동의 기호가 존재한다면 소통이라 정의하는 데 충분하다고 주장된다. 시선의 기능을 요약하려는 시도는 여러 가지가 있다. 본고에서는 여러 주장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모니터기능, 조정기능, 표현기능.

모니터기능은 시선이 상대방을 감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 내가 대화상대방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의 행위가 인지되고 조정된다는 것에 대한 신호이다. 조정기능은 시선의 도움으로 대화진행의 협력이 달성되며 그로써 상호행위가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한다. 그에 비해 표현기능은 상대방에게 감정상태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다.

또한 시선은 상호행위자간의 관계구조에 대한 지시라고 생각할 수 있으

8) Von Cranach, S. 201.

며 그 예로 오랫동안 주시하는 것은 공격적인 것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이다. 상호행위자간의 공간적 간격도 시선접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으면 더 많은 시선접촉이 생기며 짧은 공간적 간격에서는 시선접촉이 감소한다. 우리는 경험에서 발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올려다보고 발화의 시작부분에서는 시선을 돌린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발화 마지막 부분에서의 올려다봄은 상대방에게 발화를 요구하는 표시로 이해할 수 있다.

3.2 시선방향의 관점에서 시선행위

인간의 시선은 대부분 정면을 향하는데 정면을 향하는 것이 눈의 자연적 위치에 제일 적합하기 때문이다. 눈의 움직임의 순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한 관점 중의 하나이다. 여기서는 다양한 시선의 방향이 소통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기본적 질문을 바탕으로 시선의 방향 종류들을 정확하게 규정하면서 살펴본다.

시선의 방향은 관심의 방향을 나타내 주며 소통 시 부수적인 수단으로 정보가 수용될 때 이러한 수단도 함께 인지된다. 이러한 시선의 방향은 우선 정보의 발신자가 수신자의 얼굴을 바라보고 이 수신자는 발신자를 바라보지 않을 때면 '일방적 바라봄'이라 하며, 이 두 상호행위자가 서로 바라보면 '쌍방적 바라봄'이라 한다. 두 사람이 서로 바라보면 이를 시선접촉이라 지칭하며,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이 시선접촉을 피하면 시선기피라 한다. 그에 비해 시선기피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을 때 시선중지라고 한다.⁹⁾

눈과 눈의 비언어적 소통의미를 다루는 논문들의 대부분은 '주시함'과 '시선을 돌림'을 다루고 있다. 시선은 그러므로 상대방을 바라보는가 또는 바라보지 않는가에 따라 구분된다.

3.2.1 주시함: 소통용의

9) Ehlich/Rhebein (1982: 49) 참조.

‘주시함’은 ‘바라보다’와 ‘시선을 주다’로, 즉 바라봄이 있는 상태로 요약할 수 있다. 바라보는 것과 바라보지 않는 것은 지속적일 수 있고 순간적일 수 있으며 바라봄이 존재하는 것은 소통에 도움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 일반적으로 언어적 소통에 앞서 몸, 머리, 시선이 상대방에게 향하는 것이 앞서며 이러한 행위들이 계층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소통용의를 표현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시선을 주는 것, 즉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주시하는 것은 상호행위에 대한 용의를 나타내며 근본적으로 상호행위의 용의가 있는 사람은 상황의 변화, 예를 들면 새로운 대화상대자의 출현 등과 같은 새로운 상황이 도래하면 그들의 몸의 방향을 변경한다. 이때 이 상대방에 대한 개인적 관계가 큰 역할을 한다. 친밀도와 기피도가 물리적 가까움, 시선접촉 그리고 친밀함의 다른 특성들의 균형을 이루게 한다. 그에 따라 서로간의 친밀도가 낮으면 적은 시선접촉을, 그 반대의 경우 시선접촉이 많아진다.

시선이 소통의 용의를 암시한다는 견해는 시선의 여러 형태에 의해 사회적 동기나 효과의 강도 또는 변화가 나타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여러 연구에서 시선과 언어가 협력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우리는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이 말을 할 때 그 상대방을 자주 주시하며, 우리 스스로 말을 할 때는 그 보다 드물게 주시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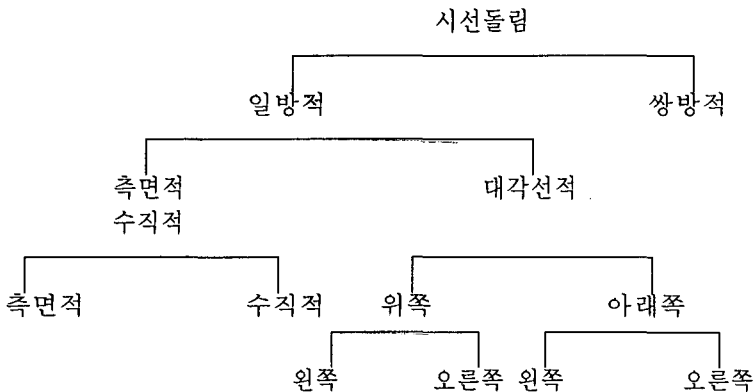
Argyle (1972: 106)은 시선방향의 결정에 여러 과정이 참여한다고 한다. 어떤 관계를 만들기 위해 A는 B를 바라보며 A가 이때 가까운 관계를 원한다면 B를 더욱 자주 바라보게 된다. 이러한 경우 시선접촉이 의도되지만 너무 강한 시선접촉은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야기한다. 원시인 또는 동물들에 있어서 특히 눈을 크게 뜨고 오랫동안 주시하는 것은 대부분 위협의 표시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 시선의 고정은 경우에 따라서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시도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시선의 행위들이 대화상대자 쌍방의 언어적 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이러한 영향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는 밝혀지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시선을 상대방에게 주지만은 그 상대방을 보지는 않는 빈시선, 멍한 시선을 주기도 하는데, 이러한 시선은 “당신이 말하는 것에 나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라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서로 인정

하는 상대방들 사이에서는 빈번하고 직접적인 시선접촉을 관찰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 또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 위해 서로의 눈을 주시한다. 상대방에게 대화의 용의가 있는가 시험해 보기 위해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허용시간을 약간 넘어선 시선을 주며 그 시선을 아주 작은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눈을 감으면서 종료해 본다. 대화용의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호를 정확히 이해하고 화자의 역할을 시작할 것이다. 발화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특별한 시선을 관찰할 수 있는데 그들은 화자를 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과 시선접촉을 시도하며 그로써 자신의 의도를 나타낸다.

3.2.2 시선돌림: 소통기피

‘시선돌림’은 ‘바라보지 않음’ 또는 ‘시선거둠’, 즉 시선의 부재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시선돌림은 여러 방향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우선 시선돌림은 옆과 위, 아래로 구분된다. 그러나 눈은 이보다 더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선돌림의 가능성은 더 다양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도표로 나타낼 수 있다:



소통시작을 위해 바라봄 등과 같은 시선이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시선의 부재가 소통의 기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통의 기피는 특별한 시선행동 또는 신체움직임과 같은 부수적 표시에 의해 표현된다. Von Cranach (213)은 다음과 같이 이러한 내용을 요약하였다:

1. 시선의 부재로 소통용의 부재가 표시된다.
2. 시선의 부재로 발신자의 소통용의 결여가 표시된다.

시선의 부재는 이와 같이 소통의 종결에 큰 역할을 한다. 시선돌림은 상황에 따라 흥미가 없음을 의미한다. 상대방을 바라보는 대신 예를 들면 자신의 손톱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대화에서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소통초기의 시선돌림은 소통의 계획국면에서 정보차폐로 이해할 수도 있다. 자폐증 어린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시선접촉을 피하기 위해 자주 머리를 돌리거나 눈을 손으로 가리는 행동을 한다. 너무 개인적인, 또는 거북한 질문을 받으면 시선을 돌리는 행동 또한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행위가 이러한 행위에 감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

3.3 눈의 열림과 눈꺼풀모양, 눈썹의 위치

시선의 방향 외에 시각적 영역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눈을 뜨는 다양한 상태이다. 눈을 크게 떴는가 혹은 아주 가늘게 조금만 떴는가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것은 물론이다. 두 대화상대자가 이미 대화 중이라면 크게 뜬눈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의 표명이다. 물론 이러한 관심이 위장된 거짓 관심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30여가지 이상의 눈꺼풀위치와 그와 비슷한 수의 눈썹위치를 말한다. 각각의 기능에 대한 일반적 언급이 불가능하지만 예를 들면 크게 뜬눈은 흥미와 알고자 하는 욕망, 만족, 자부심 등을 표현하는 반면 가늘게 뜨는 눈은 무관심, 피곤, 슬픔 등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4. 맺는말

본고에서는 비언어적 수단의 종류와 기능 등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본 후 그 중 특히 시선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이때 우리의 관심은 시선의 소통적 기능과 여러 형태의 시선행위 규명이었다. 그 결과 시선이 소통적 기능을 갖는가 라는 물음에 시선을 주고 시선을 돌리는 것은 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답할 수 있다. 시선은 사회적 상황에서 비언어적 행위의 중요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눈의 언어' 또는 '눈으로의 소통'은 소통상대방에게 많은 전달이 가능한 것 같다. 비언어적 소통의 표시기능은 상호행위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생각하면 아주 명확해진다. 대화상대자들은 돌아가며 화자가 되고 청자가 된다. 그러나 화자교환과 한 화자가 얼마만큼 오래 얘기를 하는가는 언어적으로 표시되기보다는 머리를 끄덕이거나 눈의 움직임 같은 비언어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개개 시선들의 의미는 문화마다 상이하며, 이 시선행위들은 부분적으로 선천적이며, 부분적으로는 습득되어져야만 한다. 시선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관점은 이러한 시선을 받는 수신자가 많은 경우에 얼굴의 여러 부분을 구분함 없이 이 시선이 자신의 눈에 맞춰져 있고 그에 상응하게 반응한다고 아주 주관적으로 추측한다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비언어적 소통수단에 대한 구체적 연구에 자극을 주는 것으로 만족한다.

참고문헌

- Argyle, M.(1972), Soziale Interaktion. Köln.
 Von Cranach, M.(1969), Über die Signalfunktion des Blickes in der Interaktion. In: Sozialtheorie und soziale Praxis, hrsg. v. H. Albert u.a.: 201-233.
 Ehlich, K./Rehbein, J.(1982), Augenkommunikation. Amsterdam.

- Scherer, K.(1970), Non-verbale Kommunikation. Hamburg.
- Schefflen, A. E.(1976), Die Bedeutung der Körperhaltung in Kommunikationssystemen. In: Auwärter, M. u.a. (Hrsg.): Kommunikation Interaktion Identität. Frankfurt am Main.
- Watzlawick, P./Beavin, J./Jackson, D. D.(1985), Menschliche Kommunikation. Formen, Störungen, Paradoxen. Stuttgart; Wien; Bern.
- Zielke, W.(1992), Sprechen ohne Worte. Mimik, Gestik, Körperhaltung verstehen und einsetzen. Herrsching.

Zusammenfassung

Über die kommunikative Funktion von Blickverhalten

Kim, Kab-Nyun(Korea Uni.)

Kommunikation macht 'gemeinschaftlich'. Sie erscheint v.a. als verbale, d.h. als lautliche und davon abgeleitete Sprache. Lautliche Sprache wird artikulatorisch produziert, akustisch transportiert und auditiv wahrgenommen. Was auch immer ein Mensch einem anderen mitteilen mag, wird ein geringer Teil seiner Botschaft durch Sprache kommuniziert. Neben den akustisch vermittelten Signalen können auch nicht-vokale, visuell wahrnehmbare Verhaltensweisen eines Interaktanden für einen Beobachter Kommunikationswert annehmen. Der Kommunikationsprozeß wird nicht nur durch Senden und Empfangen von akustischen Signalen konstituiert, sondern auch auf der optischen Ebene der gegenseitigen Wahrnehmung etabliert. Deshalb sagt man, es sei unmöglich, nicht zu kommunizieren. Denn nicht nur Worte sind das Material jeglicher Kommunikation, sondern auch alle paralinguistischen Phänomene (wie z.B. Tonfall, Schnelligkeit oder Langsamkeit der

Sprache, Pausen, Lachen und Seufzen usw.), Körperhaltung usw.

In der vorliegenden Arbeit bin ich darauf eingegangen, wie die Blickrichtungen einer Person von einem Gegenüber sowie einem unbeteiligten Beobachter beurteilt werden. Dabei habe ich versucht zu erläutern, welche Ursache und Bedeutung das Blickverhalten in der sozialen Interaktion hat. Und mit der Frage, wie dieses Verhalten wahrzunehmen und zu interpretieren ist, habe ich mich beschäftigt.

Die indikative Funktion des Blickverhaltens durch Zu- oder Abwenden des Blickes wurde dabei festgestellt. 'Die Sprache der Augen', 'die Kommunikation mit Augen' scheint eine Vielzahl von Mitteilungen an den sozialen Partnern zu ermöglichen. Die Bedeutung der einzelnen Blicke sind interkulturell verschieden, die Blickverhalten sind teils angeboren, oder sie müssen gelernt werden.